

유배지에서 새로운 삶 이어간
조선 최고의 지성 다산과 추사



다산과 추사, 유배를 즐기다

석한남 지음

조선시대 사대부에게 있어 유배는 큰 형벌 가운데 하나였다. 신세 격변은 중병의 원인이 되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즉 유배란 사대부에게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자 패기망신이었다는 것이다.

알려진 대로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는 정치적 탄압과 박해를 받아 각각 강진과 제주로 유배를 떠났다. 다산은 종교적 이유로 18여 년간 유배생활을 했고, 추사는 정치 권력의 패권다툼으로 두 번에 걸쳐 10여 년의 유배를 당해야 했다.

조선 최고의 지성, 다산과 추사의 알려지지 않은 귀양살이를 엮은 책이 나왔다. 고문헌 연구가인 석한남 씨가 펴낸 '다산과 추사, 유배를 즐기다'는 두 인물의 유배 지에서의 삶을 다룬다.

저자는 두 사람의 유배생활은 사뭇 달랐다고 한다. 답답하고 고된 생활이었지만, 정약용은 현지 삶에 적응했다. 심지어 유배 기간 딸까지 얻었으며 기 기간에 결혼한 후학들을 길러냈다.

"다산은 중풍에 걸려 허가 뺏겼다고 말

을 제대로 못하는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북사빠가 다 닳도록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하여 저술 활동에 전념했다. 나중에는 앉았을 수가 없어서 벽에 시령을 매달아두고 서서 집필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그에 비해 추사는 제주의 토착 음식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는 세속에서 벗어나 신선처럼 살아가고 싶어 소동파의 유배를 동경했으나, 바람과 달리 생활의 답답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신분주의와 우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지한 현지인들의 모습에 개탄하거나 다른 서예가나 스님들까지도 서슴없이 비판했다.

"추사에게 유배는 자신의 행적과 예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와 동시에 익숙한 부유(富饒)에서 벗어난 고난과 갈등의 시기이기도 했다... 예측한 대로 추사는 유배를 떠난 많은 사대부들 중에서 유일하게 반찬에 대한 투쟁을 심하게 했고 잔병치레도 많았다."

한편으로 김정희는 단절된 유배지에서 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독특한 글씨체를 재창조했다. 일명 추사체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저자는 다산과 추사 두 사람은 유배지에서 각기 다른 세계를 꿈꾸며 유배 생활을 완성했다고 본다. 이들의 조선 인문학의 최고 인물로 평가받는 데는 분명 유배라는 고난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루·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냉철한 시선으로 현대사회 이면 비판



더 나쁜 쪽으로

김사과 지음

김사과 작가는 다양한 형식 실험을 통해 사회비판적인 목소리를 담아왔었다. 지난 2010년 펴낸 첫 소설집 '02'는 한국 문단에 낯선 충격파를 던진 바 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 작가가 펴낸 '더 나쁜 쪽으로'는 냉철한 시선으로 세계를 진단한다. 현대사회의 이면을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한편, 실패한 세계에 대한 아우와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

소설집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 실린 표제작 '더 나쁜 쪽으로'는 세상을 향한 분노를 그려온 이전의 양상과는 다

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몽환적인 서사 속에서 소설가 '나'는 자본주의에 잠식된 도시를 향한 환멸을 내면으로 집적시킨다. 이 과정에서 연인이나 세계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자문한다.

2부에는 작가 특유의 냉철한 시각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본 작품들이 등장한다. '박승준씨의 경우'는 고시원에 살며 고급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함에서 웃을 주위 없는 비루한 대학생의 이야기이다. 자신만의 감각으로 유행을 비틀 줄 아는 주인공은 오래지 않아 이내 허망한 결말에 닿는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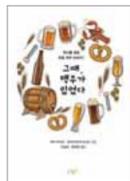
3부에는 작가가 쓴 시들이 묶였다. 지면에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기에 더욱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작품들은 장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자 하는 김사과다운 시도로 보인다. (문학동네·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잠시 휴전하자, 맥주를 가져왔다

그때, 맥주가 있었다

미카 리샤넨·유하 타흐바나인 지음
이상원·장혜경 옮김



올해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맥주 판매량이 늘었다. 최근 이후 맥주를 즐기는 나홀로족도 늘면서 편의점의 맥주 판매량도 상승했다는 얘기도 있다.

치킨과 가장 어울리는 술이 맥주다. 흔하지만 특별한 술이 또한 맥주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맥주는 사랑을 받는다.

벨기에 브뤼셀에는 오줌싸개 동상이 있다. 도시의 명물로 알려질 만큼 이 동상은 세계인들에게 깊은 각인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오줌싸개 동상이 내뿜는 물줄기가 사실은 지역 특산물 램빅 맥주라면 믿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한다. 램빅 맥주를 마신 유모의 젖을 배불리 먹은 어린 고드프리 3세가 나라의 명인이 걸린 전투에서 대승을 했다고 한다. 또 하나는 스웨덴 왕 구스타브 아돌프가 독일 농부 크로스토티 한 농가에 들러 마신 맥주를 먹고 30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물론 그 맥주는 농가에서 빚은 맛있는 술이었다.



피터 브뤼헬의 그림 '추수하는 사람들'에는 넓은 밀밭에서 밀을 베어내는 일꾼과 맥주를 통째로 들고 마시는 일꾼 등 맥주를 매개로 한 장면이 등장한다. <니케북스 제공>

맥주의 역사를 흥미롭게 조명한 책이 나왔다.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독일의 미카 리샤넨과 유하 타흐바나인네이 펴낸 '그때 맥주가 있었다'는 맥주와 역사의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본 신비한 잡학사전이다. 두 명의 저자가 모두 역사학자인데서 보듯 책은 맥주에 얽힌 이야기를 풍성하게 풀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자에 따르면 맥주에 관한 기록은 기원전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메르인들이 물로 맥주를 빚기 시작했다고 한다. 메소포타미아 농부들은 비옥한 농토를 경작하며 맥주를 만들어 마셨다. 함무라비 법전 108조(기원전 18세기)에는 술집 주인이 곡물 대신 으로는 맥주값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맥주를 마시는 풍습도 있었다. 게르만 인은 전쟁이나 사형과 같은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맥주를 마셨다. 이와 달리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는 식음 문화가 다소 저급한 수준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맥주가 "야만적이고 천박한 술"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저자는 맥주의 역사 뿐 아니라, 역사와 매개된 효용성까지도 아우른다. 네덜란드 화가들은 맥주를 그림의 소재로 삼아 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J. R. R. 톨킨과 C. S. 루이스는 옥스포드 한 펍에서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 연대기'를 저술했다.

프리드쇼프 난센이 최초로 지구 북단에 도달할 수 있었던 힘은 술 때문이었

다. 링그네스 양조장 후원 덕분에 북극 탐험에 나섰고, 오늘날 전 세계 축구팀들은 대부분 주류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다.

맥주와 연관된 다소 이색적인 사건들도 있다. 1차 대전 당시 서부 전선 병사들은 총을 내려놓고 적군과 함께 맥주를 나누어 마셨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폴란드에서는 맥주 애호가 정당이 정식으로 의회에 입성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원은 맥주 문화가 좋아지도록, 정당 수뇌부는 더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우리에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품질 좋은 맥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제대로 된 맥주집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오데르, 비스틀라, 베그 강변의 저급한 보드카 문화는 맥주를 즐기는 문화로 바뀔 것이다."

사실 맥주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취하려고 마시는 대량 생산 제품'이라는 낙인이다. 저자는 이 같은 오해는 "맥주의 다양성을 모른 채 '맥주'하면 무조건 대량에서 삼자제 사서 자동차 트렁크로 끌고 가는 싸구려"만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는 맥주의 세상은 이보다 훨씬 이채롭고 흥미진진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맥주와 역사의 흐름을 좌우했던 다양한 시대의 일화를 들려주려 한다. 나아가 유럽 식문화와 관습의 중요한 요인으로, 영감의 원천으로, 민족의 유교 관계를 다닌 기반으로써 맥주가 맡았던 중요한 역할들을 조명할 것이다."

(니케북스·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브라우닝·바이런·타고르 ... '세계의 명시' 44편 해설



시를 읽는 오후

최영미 지음

첫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5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며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최영미 시인이 세계의 명시를 모은 선집을 펴냈다.

'시를 읽는 오후'는 동서고금의 명시들 중 시인이 아껴 읽었던 작품을 골라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개성 있는 목소리

로 해설한 선집이다. 책에는 원문도 수록돼 있어 비교해 읽을 수 있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책은 지난 2016년부터 1년여에 걸쳐 일간지에 연재한 '최영미와 함께 읽는 세계의 명시'를 한데 모으고 수정·보완한 것이 토대가 됐다.

선집에는 시인이 젊은 시절에 읽었던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연애시, 독재와 관습에 맞서 싸운 유럽의 최초 '아이돌' 바이런 시는 물론, 1980년대 대학가에 울려 퍼졌던 밥 딜런의 노랫말,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기타잘리'까지 44편이 수록됐다.

(해냄출판사·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할 시민의 교양



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짜우포충 지음
남혜선 옮김

소신 있는 발언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홍콩의 유시민'이라 불리는 정치철학자 짜우포충이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쓴 책이다. 정치적 기본 개념을 알려주는 일종의 종합적인 인문교양서로 기회의 평등, 정의와 자유, 빈곤의 책임 등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할 시민의 교양을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시각에서 설명했다.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내용 덕분에 홍콩에서 여러 도서상을 수상하며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정작 중국 본토에서는 이 책을 전혀 살 수가 없다. '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의 품격'을 말하는 이 책이 아직까지도 불온 도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상식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이 책에서 저자는 중국 사회를 향한 국가와 시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더퀘스트·1만9000원)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명당찾아 삼천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집터(양택)와 가장 좋은 묘터(음택)을 찾아줍니다!

(정호) 안성준 010-3342-6338

특허방수

2중외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후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www.ipalg.co.kr에서 만나보세요.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